

광주·전남 학교, 책 쓰기 동아리 활발하네

생각 키우고 대입전형 큰 도움
초중고 20개 동아리 기획·집필
작가 초청·독서여행 등 취재도
진도고, 시리즈물 3년째 출간



광주여성(왼쪽)·태봉초가 지난해 출간한 책.



목상고 책쓰기 동아리 학생들이 주제 선정, 자료 수집 등의 출간 계획을 논의 중이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책쓰기’ 활동은 단순한 책 읽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독자로 키운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풀어내면서 자신을 올바르게 드러낼 수 있다. ‘자신을 알아가면서 꿈을 찾아가는 데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라는 게 교육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광주·전남 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책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최근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중을 높인 데다, 일선 학교의 수행평가 비중 확대와 맞물리면서 학교 내 책쓰기 동아리 활동은 비(非)교과 활동의 트렌드로 꼽히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 15개 학교 동아리 ‘나도 작가’ =전남도교육청의 ‘책쓰기 동아리’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전남 15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 동안 흥미·적성·희망 진로 등 주제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연구한 뒤 자신만의 책을 완성해 나가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순천 성남초교 4~6학년 학생들은 ‘인·

꿈·성’(인문학으로 날마다 꿈너머 꿈을 키우는 성남아이들)이라는 동아리를 만들고 매주 수요일마다 꿈을 주제로 한 독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만의 ‘꿈 책’ 발간 계획에 들어갔다.

순천 신흥초교는 4~6학년 학생 10명이 ‘인문고전읽기 연구회’라는 명칭의 동아리를 꾸리고 ‘몽실언니’, ‘난중일기’, ‘마지막 왕자’, ‘지킬 박사과 하이드’ 등 다양한 책을 읽고 따라 쓰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 책으로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진도고 학생들로 이뤄진 ‘명량한 진도’는 또 하나의 시리즈물을 제작 중이다. ‘진도비전(珍島秘傳) 시리즈물’로, 올해는 ‘風, 문화의 지도’라는 제목의 3권을 엮어 낼 구상이다. 진도고 학생들은 이미 ‘정소년의 시각에서 대한민국 서남단 섬, 진도의 역사·문화·생태·미래 총서’를 만든다’

는 야심찬 목표로 ‘진도비전’ 1·2권을 출간한 바 있다. 이미 ‘史, 시간의 지도’, ‘土, 생태의 지도’는 2014~2015년 전국 책축제 출품,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시간의 지도’는 출간됐고 ‘생태의 지도’는 올 6월 출간 예정이다.

목포 해인여고는 ‘고미담(고전예 미래를 담다)’ 동아리로 다양한 작가들을 초청, 토크 콘서트를 열고 활동 내용을 인문학 신문과 UCC로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무의식으로서의 초대’, ‘군주론’을 읽고 토론하는 가 하면 김우창 고려대 교수, 오세정 서울대 교수 등과의 대담 시간도 준비 중이다.

학다리고 가뵈플 팀은 ‘나를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이라는 주제에 맞춰 독서 여행을 다녀온 뒤 이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자신만의 보고서를 완성해나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목상고는 전남도립도서관이 진행하는 ‘지혜의 샘, 인문학강좌’를 활용, 함께 읽고 토론한 뒤 책으로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순천 금당중 학생들로 이뤄진 ‘비전향 금연못’ 동아리는 송광사·선암사, 순천만, 낙안읍성, 순천문학관 등을 둘러보고 탐방기를 모아 책으로 엮어내기로 했다.

장성고 동아리 WBH는 팜파라 가수, 코칭심리학 교수, 소록도병원 의사 등을 초청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를 토대로 자료를 수집, 연구한 뒤 책을 완성해 나간다는 구상을 세웠다.

순천 금당고 학생 동아리 ‘순금쟁이’(순천금당고등학교 글쟁이)는 다양한 주제의 책과 영화를 읽은 뒤 소설 아이디어를 구제하고 단편 소설을 만들기로 했다. 창작 과정도 글로 풀어낼 계획이다.

목포 영화중 온세미로(언제나 변함없이) 동아리는 ‘어른들이 궁금해 하는 우리 이야기’라는 주제에 맞춰 진로·학교폭력·스마트폰 사용·이성교제 등 10개의 소주제를 선정해 소설·시·수필 등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의 목표제일여고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순천 팔마고의 ‘팔마소피아’ 동아리도 책쓰기 동아리 활동을 추진한다.

◇광주, 5개 초·중·고 ‘나만의 책’ 출간 =광주시교육청은 5개 초·중·고등학교의 책쓰기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광주 호천초교와 전남중 ‘아나꿈생·아낌없이 나누고, 꿈꾸는 생각나무’ 동아리, 조대부고 글에빛 동아리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 적성, 소질, 취미, 희망 진로 등에 맞춰 주제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연구한 뒤 책을 완성해나가기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상일여고도 정부 특별 교부금을 지원받아 지역 현안을 주제로 한 평론, 칼럼, 시사판평, 시, 소설 등을 쓰는 활동 계획을 펼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대·동신대·호남대 산학협력 우수

맞춤형 지원·전통시장 매출 기여 등 인정

광주대와 동신대, 호남대가 산학협력 성과가 우수한 대학으로 꼽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연차 평가’ 결과에서다.

교육부는 23일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전국 87개 대학(일반대 57교, 전문대 30교)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광주대와 동신대, 호남대 등 3개 대학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대로는 전남도립대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22개 대학(일반대 13교·전문대 9교)에 광주·전남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의 체질을 산업계 친화형으로 변화시켜 산학협력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한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 해 사업 성과와 올해 사업 계획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광주대의 경우 가족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 지원 패키지를 개발, 지원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호남대는 송정생식시장, 나주목사교을시장, 우산월곡시장 등 전통시장과의 산학협력으로 특산물 개발, 경영컨설팅 등 시장 매출 증대에 힘쓴 점이 인정됐다. 전남대·조선대·목포대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대는 학교당 24억5000만~56억5000만원, 전문대는 4억7000만~8억4000만원의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선대, 특허기술 갖춘 청년창업 지원

교육부 산학협력 시범사업 선정

조선대가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할 전국 9개 시범대학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대학의 학생창업 지원 강화와 글로벌 산학협력 등을 위한 ‘산학협력 모델 개발 시범사업 대학’으로 일반대 6곳과 전문대 3곳 등 9개 대학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을 추진 중인 전국 87개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조선대가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청년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한다’

는 사업 과제를 제안, 창업 교육 분야 시범사업 대학에 포함됐다.

전남대·목포대·호남대 등 지역 LINC 사업대학들도 신청서를 냈지만 선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일반대 49개교(78개 과제), 전문대 19개교(21개 과제)의 신청을 받아 확산·지속 가능성이 큰 사업 과제를 제안한 학교들을 선정했다.

이들 학교는 9개월간 선도모델을 개발한 뒤 운영 기법과 시행착오 경험 등을 전국 대학과 공유한다. 이들 학교에는 학교당 5000만~2억원씩 총 12억원이 지원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진로박람회·인문학콘서트...찾아가는 고교 교육

전남대·조선대·광주교대 등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교대 등 60개 대학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2억(광주교대)~7억2000만원(조선대)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인성교육 활동·독서증진 프로그램·소외지역을 찾아 소논문 쓰기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조선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재미있는 수학 교실 =조선대는 올해 학교 안팎에서 진로·인성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선, 대학생 진로 도우미들이 광주·전남, 전북 소외지역 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전공 및 학과 안내와 진로 상담을 운

영한다. 소외지역 고등학생들과 인문·사회·자연·공학 계열 소논문 쓰기 활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 중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81개 학과와 관련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활동으로 구성된 ‘끼득끼득 학교체험’, 큐레이터와 함께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미술관이 살아있다’, 중앙도서관 투어 및 인문학 토크 콘서트를 중심으로 한 ‘책과 만나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창의수학·창의과학’ 프로그램 보급 활동도 선보인다.

◇전남대, 전국 규모 진로박람회 개최 =전남대는 ‘찾아가는 전공 일러리’, ‘반기는 전공체험 JNU’, ‘점프업’ 등 지극ंत 진행해온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꾀한다.

지난 2013년 시작한 ‘찾아가는 전공 일러리’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해만 51개 고교 1만7000여명, 58개 중학교 2만여명이 참여한 정도로 인기가.

‘반기는 전공체험 JNU’도 대학 내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64개교 9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진로 박람회는 100개가 넘는 전공에 대

한 개별 상담과 함께 다양한 진로 체험, 진학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해 광주·전남 뿐 아니라 충청권 고교들도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거듭났다.

한편,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학교 교육이 중심이 되는 대학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입학사정관 확충,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으로 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95개 대학이 신청, 60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광주대, 목포대, 순천대는 신청에도 불구, 포함되지 않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육단신

다독자 12명 선발 시상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책 읽는 문화 확산 및 도서관 소장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수캠퍼스 재학생들의 도서관 자료 대출 실적(3월 1일~5월 15일, 5월 16일~6월 15일)을 합산해 12명의 다독자를 선발, 시상하기로 했다.

오늘 전남 고교생 ‘통일 골든벨’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나주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전남 지역 23개교 학생 4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전남대회’를 연다.

28~29일 전남과학축전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여수진남경기장에서 ‘2016 전남과학축전’을 연다. 과학체험마당·과학창의성경연대회 등이 펼쳐지며 전남지역 유·초·중·고등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8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광주·전남 대입설명회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전남대·조선대, 광주교대 등 3개 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 대학 입학 담당자들이 참석, 전형 및 시사 결과 뿐 아니라 수시 모집 등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 응답도 이뤄진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 062-383-4987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

NPL 물건

NO	사건번호	물건
1	광주 2015타경 11371	모델
2	광주 2015타경 17416	근린상가
3	순천 2015타경 14423	근린생활주택
4	목포 2015타경 1551	오피스텔(주거)
5	목포 2015타경 8910[1][2]	단독주택
6	순천 2014타경 9356	근린상가
7	순천 2015타경 14058	근린상가
8	순천 2015타경 15976	근린생활주택
9	목포 2015타경 10570 [1][2][3]	근린상가
10	목포 2015타경 9821	근린상가
11	목포 2015타경 12278	아파트

믿음직가는 대부 금융사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등록번호 2016-광주서구-0021 서구청 경제과 360-7162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 062-382-498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9번길